

# 진지함과 유연성 돋보이는 일본문화 주석서

윤상인 외의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 16》

그간 우리 출판물이 일본을 이해하는 방식은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형식이었다.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면, 외국인이 쓴 일본관련서를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이 두 형식은 타자에 대한

희화화와 경직성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런 틀에서 벗어났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일본문화는 금기이자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다. 출판시장에서도 이 이중성은 예외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쏟아져 나온 《일본은 없다》 류의 비판서와 광적인 관심을 담은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본에 관한 한, 이런 이중성이 용납된다.

## 일본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접근

문제는 정작 일본문화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 책이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사회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무라카미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 사이는 텅 비어 있다. 일본문화를 두고 중심은 텅 비어 있는 기호의 세계라고 말한 사람은 롤랑 바르트지만, 그의 설명은 국내에 출간된 일본문화 관련서의 현황을 표현하는 데도 적합하다. 우리 출판이 인식하는 일본이란 제국주의 국가의 이미지와 일본 대중문화가 서로 착종된 세계다.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 16》(나무와숲)은 이런 풍토에 비하면 다소 소박한 의도에서 출간된 책이다. 이 책에 참여한 윤상인 외 15명의 교수는 일본 현지에서 수학한 바 있는 일본통들이다. 이들은 일본문화에 대한 가치판단 이전에 우선 일본문화의 본질적 요소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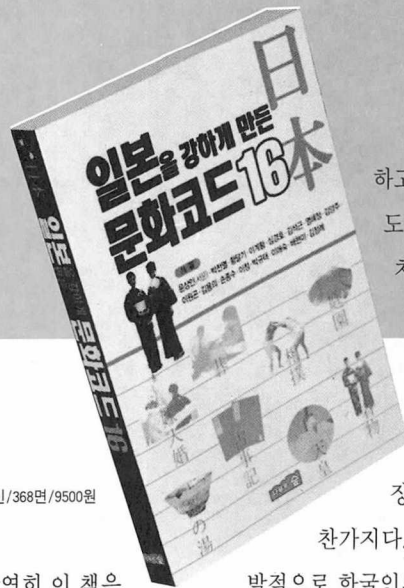
책 제목은 ‘강하게 만든’을 강조하지만, 본문 내용은 ‘일본을 이해하는’ 쪽에 가깝다.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은 일본에만 있는 문화양식을 설명한다. 이 ‘이해’에 대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붙인다. “결국 문제는 타자를 향한 시선의 윤리에 걸집된다. 타자와의 만남이 자기확인의 절차가 아닌, 자기변혁의 계기를 이루는 것, 그것은 타자에 대한 시선의 진지함과 유연성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그간의 출판풍토에 대한 성찰적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진지함과 유연성을 가지고 이 책이 찾은 ‘문화코드’는 다도·기모노·가부키·스모·마츠리 등 모두 열여섯가지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일본문화다. 진지함은 이 코드들이 타자의 것임을 알면서도 편견없이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 가치판단보다는 사실전달 치중

예컨대 우리는 스모선수의 엉덩이를 희화적으로 담은 어느 책광고를 신문에서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스모는 단지 혐오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몸놀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그런 인식 자체가 진지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본의 스모는 의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고도로 양식화한 스포츠며 그 배후에는 민간신앙과 관련한 종교적 성격이 자리



나무와숲/A5신/368면/9500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고도로 정형화된 스모의 세계를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이런 진지함은 사무라이 정신·천황은 물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도·

장인정신 등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은 자

발적으로 한국인의 시선을 탈색시키고 일본문화의 충실한 해설자를 자처한다. ‘신사’ 항목을 설명할 때도 식민지 시대 강제당했던 신사참배 경험 때문에 국가신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일은 “일본을 하나의 타자, 즉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취 줄 거울로서의 타자로 보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언급으로 넘어간다.

일본을 보는 지은이들의 진지함은 유연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니지리구치·회석요리·이로리 등 온갖 격식으로 가득한 다도의 세계를 설명하면서도 이 책은 롤랑 바르트식으로 ‘기호의 제국’이라고 규정내리고 싶은 욕망을 용케 피해간다. 유연성이란 사실 객관성이란 말에 다름 아니다. 덕분에 이 책은 일본문화 이해에 확실한 주석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 책의 미덕은 이같은 진지함과 유연성에서 비롯한다. 각 항목에 대한 세세하고 끈기 있는 설명은 노골적으로 친일, 혹은 반일을 전제하고 씌어진 어떤 일본관련서보다 설득력 있는 결론을 이끈다. 즉 이 책은 일본을 하나의 타자로 두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시점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우리말 큰사전》에는 ‘하이쿠’란 표제어가 없고 일본의 대표적인 사전 《고지엔》(廣辭苑)에는 ‘시조’가 없는 형편에 이같은 결론의 의미가 결코 작지만은 않다.

— 김연수 기자